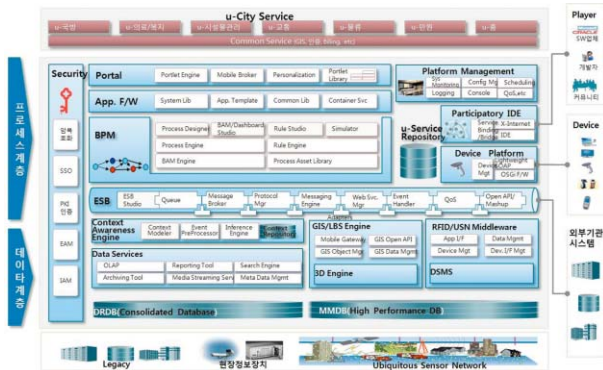




핸디소프트 글로벌비즈니스
본부 / 이상선 부사장

1. 귀사의 Ubi*Platform을 소개해 주십시오.
핸디소프트는 국내 대표 소프트웨어기업으로, 전통적 전문분야인 BPM/SOA, 미들웨어 기술을 토대로 RFID/USN 미들웨어 개발(ISO 세계 표준화 병행), 지식경제부의 중점 정보화과제인 u-City 개방형 협업 플랫폼 개발 등 u-City 관련 원천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왔으며, 그 결과물로 u-City의 효과적 구축이 가능한 Ubi*Platform을 개발하여 시장에 공급하고 있

습니다. Ubi*Platform은 u-City구축 소프트웨어로, u-Health, u-홈, u-시설물관리 등의 u-서비스와 u-City 통합운영센터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핵심 기능들을 통합 제공합니다.



〈그림 1〉 핸디소프트 Ubi*Platform 기술 아키텍처

기존의 u-City 서비스 구축 방식은 관련 기술의 백화점식 나열과 과도한 커스터마이징으로 모듈간 인터페이스 불일치, 상호운영성 미비, 과도한 유지보수 발생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. 반면에 Ubi*Platform을 도입하면, BPM/SOA, RFID/USN, 상황인식, 영상미디어처리, 디바이스제어와 같은 핵심기술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어, 컴포넌트들을 전략적으로 재사용하고 Building-Block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작할 수 있어 비용과 생산성을 개선하고, 고품질의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.

2. 귀사의 Ubi*Platform의 장점과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?

u-서비스의 핵심 요구사항으로는 도시 수준의 대용량 데이터처리, 개인화된 지능형 서비스, 안전과 관련한 고도의 신뢰성 보장 등이 있는데,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대용량 처리 성능 보장 및 상황 인식과 연계된 프로세스 기반의 서비스 융복합 처리가 필수적입니다. Ubi*Platform은 대용량 트랜잭션 환경에서 실시간 처리와 높은 비용효과성(적은 H/W 투자 비용과 고성능)을 보장하기 위해 디스크기반 DBMS 대비 TPC 성능이 월등한 메인메모리 DB와 공간정보 Query엔진을 제공합니다. 또한, 불특정 상황에서 최적의 지능형 서비스

를 제공하기 위해 룰 기반의 상황인식 엔진과 상황인식 결과를 서비스 조합으로 구성하는 프로세스 엔진을 제공합니다. 특히 Ubi*Platform이 시장에 새롭게 소개하는 개방형 협업 기술을 통해 구축 이후의 자체 수익모델 구축이 가능하고, 나아가 SW 및 건설업체, 운영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경쟁을 통해 지속적 개선과 성장이 가능한 일단의 에코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. 현재 u-City구축이 시장 초기상태이나, 대상 범위가 도시→광역→국가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, 품질과 서비스 처리 성능을 더욱 높여나가고 가격경쟁력을 강화하여 u-City 소프트웨어 플랫폼 확산을 주도해 나갈 계획입니다.

3. u-City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며, 귀사는 그 요소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?

현재 시범사업 위주로 진행중인 u-City 사업은 개별 기술의 나열이나 관제 서비스에 치중하고 있어, 해당 도시민들에게 뚜렷한 가치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유는 표준 서비스모델 부재, 예산부족, 관련 법제도 미비 등을 들 수 있으나, 근본적으로는 IT본위적 접근만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. 앞으로는 도시환경, 비즈니스를 아우르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u-City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기술과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, 대단위 투자가 수반되는 점을 감안하면 제시된 기술과 방안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. 핸디소프트는 BPM/SOA, RFID/USN, 개방형 협업 환경 등의 핵심 기술들을 Ubi*Platform으로 통합·재편하면서 u-City구축의 목표와, 도시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비즈니스 케이스들을 분석하여, 이를 바탕으로 u-City 구축에 최적화된 컴포넌트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. 더불어 시장우위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요 HW 투자 절감을 위한 소프트웨어 성능 향상과 u-City 규모별 맞춤구성이 가능한 제품 모델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4. 향후 u-City 분야의 전망과 이에 따른 귀사의 전략이나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u-City는 국가차원에서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분야입니다. ETRI 연구에 의하면, 201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20조원이 투자되고 산업생산 유발효과가 약 58조원, 산업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약 4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선제적 투자와 시장선점이 필요한 유망분야입니다. 핸디소프트는 u-City 플랫폼 시장에서의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기술적으로는 BPM/SOA, MMDBMS, RFID, 미들웨어 등 원천기술의 고도화와 표준화를 통해 핵심기술에 대한 IP를 계속 확보해 나가고, 사업역량으로는 개방형 협업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자들과 상생의 협력모델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. 이를 통해 u-City분야, 더 나아가 유비쿼터스 컴퓨팅 분야에 있어서 IBM, 오라클, MS 등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과 경쟁 가능한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.



한국토지공사 u-City 건설단
박동석 단장

1.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하는 u-City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.

서울, 부산, 인천, 대구, 대전 등 46여개 이상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경쟁리에 u-City가 추진되고 있습니다. 한국토지공사는 국내 최초로 u-City를 구축, 서비스를 제공 중인 화성동탄신도시를 필두로, 성남판교, 행정중심복합도시, 용인홍덕, 수원광교 및 파주운정 지구 등에서 구체화 되고 있으며, 10개의 혁신도시, 기업도시 등에도 u-City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 할 예정이거나 수립 중에 있습니다. 유비쿼터스 도시(u-City)는 도시개발에 유비쿼터스 IT기술이 융복합되는 것으로 기존의 도시와 달리 도시의 개발계획단계에서부터 생태환경, CPTED(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: 범죄예방환경설계), 방재 도시, 지능도시의 개념을 적용하여 도시기반시설물, 치안, 교통, 행정 등의 도시내 모든 정보를 도시통합관제센터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수집합니다. 또한, 다양한 서비스 및 기능들이 통합적으로 관리 운용되어 자원의 공동활용 및 운영상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문제상황 발생시 소방, 방범, ITS, 재난종합상황실 등의 기능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상황 해결 및 추가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게 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도시관리 및 주민의 안전과 편의제고가 가능하게 됩니다.

2. u-City의 장점과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?

공사에서는 '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'를 만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u-City를 최초로 도입 구현하고 있으며, u-City의 근거법이 국토해양부의 노력으로 지난 3월 제정 공포되고 시행령 및 제도가 정비 중에 있으나 아직도 곳곳에 산재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. 유시티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교통, 환경, 방범, 방재, 재난 등 각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가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 u-City시설물 및 각 서비스의 관리주체인 지자체와 서비스선정 및 운용, 유시티운영센터 구축 등에 대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. 현재의 u-City 서비스가 교통, 방범·방재, 시설물관리, 환경 등 공공서비스 영역에 치중되고 u-City의 미래모습에 대한 상상과 현실간의 괴리에서 입주민 체감도가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점이 있습니다. 따라서,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적극 나서서 기술개발 및 서비스 적용도를 제고하여야 하나 u-City컨텐츠 또는 홈네트워킹 부문 등에서 시설투자 및 연구의 가시적 성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. u-City 건설사업은 구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프라망, 서비스, 센터 운용 등에 지속적인운영관리가 중요하나 구축사업비의 8~10%에 이르는 운영유지비용이 연간 소요되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구축사업 자체에 애로가 있고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u-City 도입으로 지역균형발전의 부가적 성과까지 거두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하

여 u-City 구축주체인 도시개발사업자와 구축이후 관리운영할 지자체간의 '사업협의체(PMO)'의 선구성을 통한 효율적 추진이 필요하며, 특히 구축비용을 많이 차지하는 네트워크망의 임대망 우선 및 센터 구축시 우선적으로 기존의 공공시설내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및 서비스별로 주체를 선정해 역할을 정립하고, 민간투자와 연계한 주민체감형 u-City서비스를 다양화하고 IT기술의 발전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단계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. 또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는 국가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매칭펀드 방식 등 예산을 보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.



〈그림 1〉 화성 동탄신도시 u-City의 핵심시설인 도시통합정보센터를 참관 중

3. u-City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며, 귀사에서 그 요소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?

u-City는 구축 이후가 u-City 활성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운영유지비 문제 해소를 위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u-City 표준모델 및 통합플랫폼의 개발 보급, u-City 시설물 및 서비스 등을 통한 수익모델 창출, 규제완화 등이 선결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이를 위하여 공사에서는 국토해양부의 R&D과제와 연계하여 연구용역을 수행중이고, u-City 시설물 및 자산을 활용한 부대사업 허용 및 민간투자 참여 활성화, 도시통합센터의 복합화, 센터에 집중된 정보를 활용한 프리미엄 방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수익모델 강구, 대정부 규제완화 건의, 전문가의 자문 및 용역 등을 통하여 해소방안을 강구 중이나 금명간 해소되기에 어려운게 현실입니다.

4. 향후 u-City 분야의 전망과 이에 따른 귀사의 전략이나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토지공사가 개발하는 신도시 중심으로 구축 되고 있는 u-City는 이제는 기존 도시까지 연계되어야 할 도시개발시스템으로 우리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도시개발의 필수요소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, IT 강국인 장점을 살려 u-City 관련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등으로 발전시킬 경우 국내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뿐만 아니라 해외신도시개발과 연계한 수출도 가능한 분야입니다. u-City를 선도하고 있는 토지공사에서는 u-City 인프라 구축단계인 동탄신도시의 구축경험을 피드백하고 정부 및 지자체, 민간 등과 역할을 정립하여 모두가 기대하는 u-City를 구현하도록 신도시 등에 효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.